



주인수인철길

주인공원 역사를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정소훈 - 중국학
김민경 - 중국학
즈엉티타오 - KLC 학과
응웬티훤짱 - KLC 학과

주인공원
主人公園



목차

- 주인공원이란?
- SDGS
- 문제상황
- 해결 아이디어
- 기대 효과

주인선의 역사

주인선(主仁線)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역과 남인천역 사이에 부설된 철도를 이르는 말이다. 총 연장길이 3.8km로 동서로 뻗은 도로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부설되었다. 주안역과 연결되었던 남인천역은 1937년 수인선 개통 당시 시종착역으로 당초 '인천항역' 이었다가, 1948년 '수인' 1955년에는 다시 '남인천역' 으로 명칭이 개칭되었고, 1973년 노선이 폐선되며 없어진 역이었던 남인천역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흔히 '남부역' 이라 불렀던 '남부 신호소(Signal Station)' 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역을 혼동하여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1957년 9월 26일 착공되어 1959년 2월 20일 완공된 주인선은 당일 오전 10시 운행을 성공 마쳤다. 총공사비는 한화 3억 1천 5백 45만원, ICA 원조 10만 불이 소요되었다. 주안-남인천간 산업철도 용도로 신설되었지만, 실제로는 부평과 동두천까지 연결되는 미군 화물운송 수송이 주목적이 되었다. 때문에 인천에서 주인선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철도를 '남부선' 철도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다. 부수적으로 한때 인천거주 징병 대상자들이 남인천역에서 남부역에서 입영열차를 타고 주인선을 거쳐 논산의 육군 제2훈련소까지 신려 갔고, 남부역에서 이곳에서 작별하였다.

주인선의 변적은 선로부지(주안~남인천)가 30,571㎡(9,264평)이고, 역사부지 21,778㎡(6,599평)이었다. 그 사이에 총 5개의 건널목이 있었고, 교량은 차도도로에 과도교 1개소, 배수로와 구교에 구교 2개소가 있었다. 주인선의 노선 관리 업무는 영등포보선사무소 인천분소(永登浦保線事務所 仁川分所)에서 담당하였다.

주인선은 1985년 11월 15일 공식적으로 그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후 철길만 존재하다가 방치되다가 1994년 4월 22일 「제4차 철도청 정책심의회 결과보고 회의」에서 철도청의 결정을 하고 주안역에서 제물포역 입구(약 2km)는 존치하고, 제물포역 인근 철교에서 입구까지 약 1.8km는 폐선하였다. 인천시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간을 주인공원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주인선의 흔적을 따라 걷는 주인공원에서 각기 다른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고, 간간히 남아있는 맛집, 휴이 있는 공간이 야박 하리만큼 작지만 그 듬바구니를 공급하는 푸성귀들의 모습이 옛 친구를 만난 듯 반갑기만 하다.

(사)인천사연구소 김상태



1. 주인공원 철길

- 주안과 남인천역 사이에 부설 될 철도
- 1985년부터 운행 중단
- 2005년 경 공원이 조성됨

3. 문제 상황

- 주인공원이 철길이었다는 역사를 한눈에 알기 어려움.
- 지역 주민조차 주인공원이 과거 철도였다는 사실을 몰랐음.



4. 해결아이디어



Integrity

- QR코드 제작하여 공원과 철길역사 소개



4. 해결아이디어



Collaboration

밤에 안심 가로등
(철길 모양) 설치
하여 과거 철길 알
림.



5. 기대 효과

- 1.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음.**
- 2. 안정 가로등을 설치하여 밤 산책이 안전하고, 철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음.**

문헌 참고: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8695766&memberNo=30187053&vType=VERTICAL>
- https://blog.naver.com/tong_namgu/222307256322
- <https://blog.naver.com/brown13/223066647593>

세계시민 교육: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

감사합니다
